



제목	로마제국 쇠망사2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민음사
발행일	2008. 7. 21.
저자	에드워드 기번 송은주 옮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561
ISBN 또는 ISSN	978-8937426322

내용 요약

이 책은 콘스탄티우스 황제의 치세부터 발렌스 황제의 아드리아노플 전투까지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글이다. 페르시아와 관련해서는 18장과 24장 두 부분에 있다. 18장은 “콘스탄티우스 황제의 사망과 세 아들에 의한 제국 분할, 페르시아 전쟁” 부분에서 샤푸르 2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호전적인 샤푸르 2세는 선조들의 치욕을 앙갚음하고 티그리스 강 아래 5개 속주를 로마인들로부터 탈환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337-360년의 페르시아 전쟁을 시작하였다. 그는 싱가라 전투, 니시비스 전투, 아마디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4장은 “율리아누스의 안티오크 체류, 성공적인 페르시아 원정, 티그리스 강 도착, 율리아누스의 퇴각과 사망, 요비아누스의 추대, 굴욕적인 강화 조약으로 로마군을 구하다”는 소제목들을 달고 있다. 이 장에는 363년 율리아누스 황제가 페르시아 격퇴를 목표로 출전한 전쟁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전쟁 준비, 사막 지대로의 진군, 페르시아 내부로의 성공적인 행군, 수도인 크테시폰 인근의 페리사보르와 마오가말카 포위 공격과 성공, 티그리스 강 도하와 군수품 폐기 이유, 율리아누스 황제의 사망, 전장에서 근위부대장인 요비아누스가 황제로 선출되는 과정, 로마군의 무사 귀환을 위해 메소포타미아 5개 속주를 반환하는 굴욕적인 강화 조약 과정 등에 대한 서술은 당시의 전쟁 맥락을 파악하는데 유익하다. 요비아누스의 약점, 굴욕적인 외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율리아누스 죽음에 대한 회고 부분에는 로마의 패배와 이교황제에 대한 국론 분열 과정을 상세히 서술, 저자의 분석력을 돋보이게 한다.